

중국 연변조선족의 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1995년과 2000년의 비교

이장호 ** · 박태수 ***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의 의식과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종단적 연구이다. 1995년 1차 조사연구 자료와 2000년 2차 조사연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현재 연변조선족의 세대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령 집단별(연변일중, 연변대, 사회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총 558명(1차 조사연구 327명, 2차 조사연구 231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의식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변조선족은 5년전에 비해 자본주의적 경제가치의식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선호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판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식성향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논의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밝혔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남북한간 정치적인 화해 무드가 급속히 진행되고

*본 연구는 선임 연구자의 2000년도 서울대 학술 연구기금 보조로 이루어진 “중국 연변조선족 정신문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일부임. 조사자료 수집과정에서 연변대 황형규 교수와 연변과기학원 이승종 교수의 지원이 있었으며, 서울대 신희천 선생이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초고 작성에 기여했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전공분야는 상담심리학이며, 관심연구분야는 남북통일의 심리적 접근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논문으로 중국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1995),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의 의식구조 비교(1996)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33, E-mail: chl3631@chollian.net; chl3603@kornet.net).

***朴泰洙. 중국길림성 연변대학 교육학심리학교연부 주임교수. 전공분야는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민족교육이다. 주요저서로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간명한국백과사전》, 《당대한국인문사회과학》, “중국조선족교육의 발전과 계획”,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고”, “민족교육의 문화선택 및 그 중요성” 등이 있다(연락처: 0433-2732973, E-mail: jiaoxin@ybu.edu.cn, ydptzh52@china.com).

있다. 남북한 정상간의 6·15 회담이 이루어진 뒤, 15년만에 4개월 기간 중 2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북한군 장성과 남한 국방부 장관의 첫 회담도 성사되었다. 이러한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평화와 냉전 해체의 체감적인 흐름이 가속화 되면서 북-미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제적인 지지와 협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동향을 살펴볼 때, 더 이상 한반도의 통일은 '추상적인 미래의 사전'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통일을 향한 국제적인 여건이 무르익어 가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통일에 대비한 청사진을 만들고 구체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통일과정을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현실로서의 통일과정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통일은 제도적, 사회구조의 통합 이상의 인간 삶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므로, 일찍이 통일에 대한 심리적 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이장호, 1993; 민경환, 1994; Kohr, 1993). 예를 들어, 민경환(1994)은 반세기 이상 남과 북이 상이한 정치 경제적 체제 아래서 각각의 체제에 적합한 인간형을 길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남북한 사람들간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통일 후 어떻게 서로 적응하고 화합할지가 커다란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심리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서로간의 적응과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는 무척 어렵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심리상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탈북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추론하거나, 북한과 인접한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왔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 이후 최근년간 국내의 연구자들이 직접 중국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조선족 사회와 조선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연변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의 심리적 통합을 위해 시사하는 각별한 의

미가 있다. 중국내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는 연변지역은 민족적 동질성(심리적/문화적)을 유지하면서도 남북한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적 동질성'이 가장 중요한 심리적 토대가 되는데(이장호, 1996), 연변지역 조선족 사회는 이러한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서로 다른 가치와 의식이 혼입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 연변 지역은 통합 이후의 반도 민족사회를 미리 그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통일 이후 남북한 만남의 예비적 검증무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변 지역 조선족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통일 후 상이한 가치관과 경험을 지닌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통합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자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1년간 연변 지역을 방문하여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를 탐색적으로 조사하면서, 조선족의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의식을 연령 집단별로 분석하고, 연변대학생 집단과 서울대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당시 결과를 요약하면, 연변지역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 왔지만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고 한국과 개혁 및 통일전망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자체의 개방화 노력과 한중 수교 이후 부쩍 증가된 인적 물적 교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연변지역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는 1995년 연구의 제안점을 기초로, 5년이 지난 후의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0년 3월 중국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2개월에 걸친 후속연구를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심리상태 및 의식기반을 탐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1) 현재의 직업적 소망은 무엇인지, 2)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3)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 4)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5) 현재 나의 입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등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심리 상태와 의식을 살펴보자 하였다. 또한 '한(조선)반도의 통일' 등에 대해 연상되는 생각과 느낌을 평정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심리적 상태와 의식성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질문지 구성상, 개인의 심리상태와 의식

을 살펴보는 질문들은 선호하는 순위별로 반응토록 하였고, ‘현재 나의 입장’과 ‘통일전망’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적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문항에 대해 의미미분법적 평정을 사용한 이유는 평가되는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느낌과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찬반(贊反) 형식의 이분법적 질문방식에서 확인될 수 없는 양가적인 태도를 분석하는데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방법론상 동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후속연구는 2차에 걸친 종단 연구(longitudinal research)의 특성을 갖는다. 연변 조선족에 대한 1차 조사연구는 1995년 6월 연변지역 주민에 대한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2차 연구조사는 2000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변 조선족의 심리상태와 의식을 탐색하기 위한 1차 조사연구(1995년)의 결과는, 이미 2편의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중국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와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한족의 의식구조 비교’ 참고). 본 논문에서는 2차 조사연구(2000년)의 자료를 1차 조사연구(1995)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와 심리상태가 5년간의 시대적 간격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변 조선족의 각 연령 집단간 비교를 통해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와 심리 상태를 횡단적(intersectional)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연변 조선족사회 구성원들의 세대간 의식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1차 조사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인 연길(延吉)시 주민을 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조선족 고등학교인 연변일중의 1학년 두 학급, 연변대학(延邊大學) 4개 학부에 재학중인 조선족 대학생, 그리고 일부 연길시 거주 사회인 집단을 대상으로 1995년 6월 중 ‘일반 심리상태에 관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선임 연구자와 연변대학 교원의 감독 하에 집단별로 배부한 후 응답지를 수합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주로 선임 연구자의 기획으로

7개 Likert척도(8점) 문항을 포함한 총 16개 문항(중국어·조선어 양종)으로 제작되었으며,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의 검토와 예비조사가 선행되었다. 총 327명이 본 연구목적에 합당한 기준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2차 조사연구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인 연길(延吉)시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연길, 훈춘, 돈화, 도문, 룽정, 화룡 등 6개 도시와 안도, 왕청 등 2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의 밀집 지역 전체를 지칭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간 차이와 도시 농촌 지역간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1차 조사연구 지역과 동일한 연길시 조선족 주민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선족 고등학교인 연변일중, 연변대학(延邊大學)에 재학중인 조선족 대학생, 그리고 일부 연길시 거주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2000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일반 심리상태에 관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선임 연구자와 연변대학 교원의 감독 하에 집단별로 배부한 후 응답지를 수합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1차 조사연구에서 사용한 질문 문항과 일치하며, 연구자의 관심을 반영한 몇 가지 문항이 더 추가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분석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2차 조사연구에서는 총 231명이 본 연구목적에 합당한 기준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1차 조사연구 대상 327명과 2차 조사연구 대상 231명이 응답하여, 5년 간격의 1,2차 조사연구에 총 558명의 연변 조선족이 참여하였다.

2) 설문 응답자의 주요 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조사에서 분석 가능한 설문응답지를 제출한 반응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연구(1995년)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2차 조사연구에서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아래 <표 2>와 같다. 연변일중, 연변

<표 1> 1995년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延邊一中(79명)	延邊大(200명)	延邊社會人(48명)
性 女	35명(44.3%)	134명(67%)	34명(70.8%)
男	44명(55.7%)	66명(33%)	14명(29.2%)

〈표 2〉 2000년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延邊一中(63명)	延邊大(122명)	延邊社會人(46명)
性	女	35명(55.6%)	85명(69.7%)	26명(43.5%)
	男	28명(44.4%)	37명(30.3%)	20명(56.5%)

대, 연변 사회인 세 조선족 집단의 표집 규모(sample size)와 성비(性比)를 고려하여 표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나, 현지 연변지역의 자료수집 협조 사정에 따라 다소간 구성비율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 조선족들의 심리 상태 및 의식 변화를 탐색하는 종단적 조사연구(longitudinal survey research)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1차년도(1995년) 자료와 2차년도(2000년)의 차이를 기술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두번째 연구 목적은, 현재 연변 조선족의 의식이 세대간에 걸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는 탐색적인 조사연구(explorative survey)에 있다. 이를 위해 조선족 내에서의 연령집단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변 일중생, 연변대생, 그리고 사회인집단별로 주요 설문 문항에 대한 집단간 반응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4)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중국 주민들의 심리 상태 및 의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1) 현재의 직업적 소망, 2)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 4)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 5) 현재 나의 입장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현재의 심리상태와 의식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 등에 대해 연상되는 생각과 느낌을 평정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현재의 심리적 상태와 의식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1) 소망하는 직업에 관한 반응

현재의 직업적 소망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순위별로 나열한 것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차년도와 2차년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1995년에 비해 2000년 응답에서 는 기타 항목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교생(연변일중), 대학생(연변대), 연변 사회인 집단 모두에 걸쳐 동일한 결과이다.

한가지 눈에 띄는 결과는 1차년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 조사에서도 '기업가'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집단보다는 '연변일중'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차년도 연구조사에서, 연변일중생 집단은 '기업가'를 소망하는 직업의 1순위로 꼽은데 비해 연변대생과 연변사회인 집단은 각각 3위,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2차년도 조사에서도 연변일중 집단의 17.5%가 '기업가'를 소망하는 직업으로 선호한 데 비해 연변대와 사회인 집단은 각각 5.7%, 10.9%로 나타났다.

〈표 3〉 소망하는 직업의 비교

순 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	企業家(27.4%)	기타(42.9%)	教員(38.0%)	기타(45.1%)	文秘(20.8%)	무응답(36.8%)
2	科研人(23.4%)	학자(20.6%)	文秘(16.0%)	교사(29.5%)	財會(16.7%)	교사(26.1%)
3	醫師(11.7%)	기업가(17.5%)	企業家(14.5%)	공무원(14.8%)	其他(14.6%)	공무원(15.2%)
4	律師(10.4%)	공무원(12.7%)	公務員(14.5%)	기업가(5.7%)	教員(12.5%)	군인(15.2%)
5	其他(7.8%)	교사(4.8%)	個體戶(3.0%)	학자(3.3%)	企業家(8.3%)	기업가(10.9%)

- a. 여기서 科研人員은 과학자와 연구자를 말한다.
- b. 文秘는 중국의 직업유형의 하나이며 작가, 기자, 번역가 등을 말한다.
- c. 財會도 중국의 직업 유형의 하나로 여기에는 稅吏도 포함된다.
- d. 個體戶는 개인사업을 일컬으며, 상점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직업이다.

한편, 2차년도 연구조사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변대생과 사회인 집단이 교사, 공무원과 같은 직종을 가장 선호한데 비해, 연변일중 집단은 공무원과 교사가 각각 4순위와 5순위로 가장 낮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중요성에 관한 반응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8개의 지문(먹고 입는 것, 보장된 일터, 명예, 능력발휘·성공, 안전한 거주, 사랑, 자존심(주체성), 사회국가 발전에 복무) 상에서 평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차년도 조사결과와 2차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5년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다른 항목에 있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일관된 차이를 반영하는 응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 결과 중 조선족 집단내 연령별 비교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보장된 일터', '먹고 입는 것', '안전한 거주'와 같은 구체적인 필요에 심리적 중요성을 두는데 비해,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자존심, 사랑,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심리적 중요성의 순위 반응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	능력·성공 (70.5%)	능력·성공 (39.7%)	능력·성공 (43.0%)	능력·성공 (45.9%)	능력·성공 (45.8%)	능력·성공 (56.6%)
2	자존심 (10.3%)	사랑 (15.9%)	보장된 일터 (21.0%)	사회발전 (12.3%)	보장된 일터 (20.8%)	보장된 일터 (13.0%)
3	사랑 (6.4%)	보장된 일터 (12.7%)	사랑 (10.0%)	보장된 일터 (9.8%)	먹고 입는 것 (10.4%)	자존심 (8.7%)
4	명예 (2.6%)	자존심 (12.7%)	자존심 (8.5%)	사랑 (9.8%)	안전한 거주 (6.3%)	기타 (6.5%)
5	먹고 입는 것 (2.6%)	사회발전 (9.5%)	사회발전 (6.5%)	자존심 (5.7%)	사회발전 (6.3%)	안전한 거주 (4.3%)

이에 비해 2차년도 조사결과를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연변일중 집단에서 '보장된 일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1차년도 결과와 비교할 때, 연변일중 집단이 추상적인 것에 심리적 가치를 두었던 경향에서 '보장된 일터'와 같은 경제적 필요에 가치를 두는 경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3)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 대한 반응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5가지 지문(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살뜰함, 생활중의 성공(예: 입학, 취업 등), 연애, 친구의 이해, 기타)에 대한 응답이다.

먼저 1차년도 조사결과와 2차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두 '성공'을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일관적으로 '성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명백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연변대생 집단의 경우 1차년도에는 48.5%가 '성공'이라고 답한 데 비해 2차년도에서는 80.3%가 '성공'이라고 응답했다.

조선족의 연령 집단간 비교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연령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가지 특징은 연변대생 집단의 경우 2차년도에서 '친구 이해'를 행복을 느낄 때로 꼽은 비율(56.6%)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5〉 행복을 느끼는 경우의 순위 반응

순 위	延邊—中		延邊大		延邊 社會人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	성공 (59.5%)	성공 (66.7%)	성공 (48.5%)	성공 (80.3%)	성공 (73.9%)	성공 (78.9%)
2	부모사랑 (21.5%)	부모사랑 (25.4%)	부모사랑 (12.5%)	친구이해 (56.6%)	부모사랑 (19.6%)	부모사랑 (7.9%)
3	친구이해 (10.1%)	친구이해 (17.5%)	친구이해 (8.0%)	부모사랑 (32.8%)	친구이해 (8.7%)	기타 (5.3%)

4) 행복한 인생의 조건에 관한 반응

'행복한 인생'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8가지 지문(경제적 안정, 좋은 사회관계, 미래사회에 공헌, 즐거운 오락, 종교(신앙)생활, 성실한 사랑, 건강, 자신의 인간적 발전)에 대한 응답 순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대별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건강'을 행복한 인생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행복한 인생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연변대 집단의 경우 1차년도와 달리 2차년도에서 '경제적 안정'을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연변일중 집단에서도 확인되는데, 1차년도에서 8.9%로 응답한데 비해 2차년도에서는 15.9%가 '경제적 안정'에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사회인 집단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2차년도 결과가 1차년도에 비해 일관적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응답은, '인간적 발전'을 행복한 인생의 조건으로 보는 응답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표 6〉 행복한 인생의 조건 비교

순 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	건강 (32.9%)	건강 (27.0%)	건강 (31.0%)	경제적 안정 (29.5%)	건강 (29.2%)	건강 (39.1%)
2	사랑 (20.3%)	인간적 발전 (23.8%)	사랑 (20.0%)	건강 (22.1%)	경제적 안정 (27.1%)	경제적 안정 (26.1%)
3	인간적 발전 (16.5%)	경제적 안정 (15.9%)	경제적 안정 (19.5%)	인간적 발전 (15.6%)	사랑 (16.7%)	인간적 발전 (15.2%)
4	사회관계 (13.9%)	사랑 (11.1%)	사회관계 (12.5%)	사랑 (14.8%)	인간적 발전 (16.7%)	사랑 (8.7%)
5	경제적 안정 (8.9%)	사회관계 (9.5%)	인간적 발전 (8.0%)	사회관계 (4.9%)	사회관계 (8.3%)	사회관계 (4.3%)

다. 이러한 응답경향의 차이는 연변일중과 연변대생 집단에서 두드러졌으며, 이에 비해 사회인 집단은 1차년도와 2차년도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5)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한 반응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 연상되는 느낌이나 생각을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와 같은 의미차원에서 8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종단적 차이를 비교한 검증 결과(t 검증)를 제시하였다. <표 8>은 횡단적으로 2차년도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일원변량분석).

‘연변일중’ 집단은 1차년도(1995년)에 비해 2차년도(2000년)에서는 전반적인 평균치상의 상승경향을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연변대’ 집단은 1차년도(1995년)에 비해 2차년도(2000년)에서는 ‘밝다’ ‘높다’ ‘강하다’ 차원에서는 평균치상의 상승경향이 나타났으나, ‘믿음직하다’ 차원에서는 반대로 다소간의 평균치의 감소가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회인’ 집단은 1차년도(1995년)에 비해 2차년도(2000년)에서는 모든 차원에서 평균치상의 감소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표 7> 자신의 현재입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집단별-시기별)

	延邊一中		t 값	延邊大		t 값	延邊社會人		t 값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밝다	6.73 ^a	6.97	-.867	6.65	6.72	-.385	6.96	5.85	2.36**
	(1.69) ^b	(1.47)		(1.55)	(1.62)		(1.44)	(2.85)	
높다	6.70	6.86	-.614	6.51	6.79	-1.55	6.83	5.28	3.12**
	(1.73)	(1.39)		(1.55)	(1.57)		(1.31)	(3.12)	
강하다	6.66	6.87	-.757	6.55	6.75	-1.14	7.04	5.57	3.14**
	(1.77)	(1.56)		(1.52)	(1.67)		(1.17)	(2.98)	
믿음직	7.11	7.24	-.508	6.90	6.75	-.784	6.92	5.87	2.17**
하다	(1.48)	(1.41)		(1.52)	(1.85)		(1.58)	(2.87)	

a. 8점 척도상에서의 평균

b. ()은 standard deviation

*p<.05, **p<.01

〈표 8〉 '자신의 현재입장'에 대한 연령집단간 차이결과(2차년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밝다	집단간	36,314	2	18,157	5.071	.007
	집단내	816,396	228	3,581		
	합	852,710	230			
높다	집단간	86,241	2	43,120	11.492	.000
	집단내	855,499	228	3,752		
	합	941,740	230			
강하다	집단간	56,266	2	28,133	7.216	.001
	집단내	888,911	228	3,899		
	합	945,177	230			
믿음직하다	집단간	50,298	2	25,149	6.306	.002
	집단내	909,269	228	3,988		
	합	959,567	230			

났다.

우선 1차년도 조사결과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이장호·박태수·노석련, 1995 참고), 연변일중, 연변대학, 그리고 연변사회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어떤 하위 감각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비해 2차년도 조사결과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차원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밝다' 차원($F(2, 228) = 5.07, p < 0.01$), '높다' 차원($F(2, 228) = 11.49, p < 0.01$)과 '강하다' 차원($F(2, 228) = 7.22, p < 0.01$) '믿음직하다' 차원($F(2, 228) = 6.31,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간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 test)을 한 결과,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차원 모두에서, 연변일중과 연변대학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인 집단과 연변일중 그리고 사회인 집단과 연변대학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5$ 수준).

6)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한 반응

한반도(조선반도)의 통일에 대해 연상되는 느낌이나 생각을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와 같은 의미차원에서 8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 결

〈표 9〉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집단별-시기별)

	延邊一中		t 값	延邊大		t 값	延邊 社會人		t 값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밝다	6.40 ^a (2.17) ^b	5.27 (2.58)	2.85**	5.28 (2.26)	5.38 (2.33)	-.501	5.77 (2.04)	3.91 (2.84)	3.62**
높다	6.25 (2.00)	5.56 (2.55)	1.78	5.09 (2.17)	5.25 (2.24)	-.854	5.54 (2.01)	3.72 (2.85)	3.57**
강하다	6.10 (2.13)	5.25 (2.60)	2.14*	5.19 (2.19)	5.34 (2.23)	-.971	5.63 (2.05)	3.85 (2.87)	3.45**
믿음직	5.86	4.84	2.50**	5.16	4.65	1.58	5.45	4.37	2.15*
하다	(2.23)	(2.62)		(2.18)	(2.43)		(2.12)	(2.73)	
나와 밀접	5.96	5.00	2.46*	5.47	5.09	1.67	5.79	4.67	2.17*
하다	(2.25)	(2.39)		(2.15)	(2.25)		(2.23)	(2.74)	

a. 8점 척도 상에서의 평균

b. ()는 standard deviation

*p<.05, **p<.01

과는 다음과 같다. 〈표 9〉에는 각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t검증)가 제시되어 있다. 〈표 10〉은 2차년도 연령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일원변량분석).

'연변일중' 집단은 1차년도(1995년)에 비해 2차년도(2000년)에서는 전반적인 평균치의 감소경향을 볼 수 있으며, '밝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변대' 집단은 1차년도(1995년)와 2차년도(2000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밝다' '높다' '강하다' 차원에서는 다소간 평균치의 상승경향이 나타났지만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 차원에서는 반대로 평균치의 감소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인' 집단은 1차년도(1995년)에 비해 2차년도(2000년)에서는 모든 차원에서 평균치상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우선 1차년도 조사결과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이장호·박태수·노석련, 1995 참고), 전반적으로 연변일중생 집단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방향으로 가장 높은 평정을 하였고 연변대학생 집단이 가장 낮은 평정을 하였다. 연령 집단

〈표 10〉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연령집단간 차이 결과(2차년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밝다	집단간	75.548	2	37.774	6.011	.003
	집단내	1432.721	228	6.284		
	합	1508.268	230			
높다	집단간	102.783	2	51.392	8.528	.000
	집단내	1374.005	228	6.026		
	합	1476.788	230			
강하다	집단간	79.480	2	39.740	6.531	.002
	집단내	1387.412	228	6.085		
	합	1466.892	230			
믿음직하다	집단간	5.917	2	2.959	.457	.634
	집단내	1474.974	228	6.469		
	합	1480.892	230			
나와밀접	집단간	5.814	2	2.907	.509	.602
	집단내	1302.117	228	5.711		
	합	1307.931	230			

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변일중생들은 연변대생들에 비해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 의미방향으로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76)=14.00$, $p<0.01$); $F(1,275)=16.61$, $p<0.01$; $F(1,272)=9.69$, $p<0.01$; $F(1,274)=5.68$, $p<0.01$). 연변일중생들은 연변 사회인들과 비교할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소 높은 긍정적 의미평정을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연변사회인 집단은 연변대생 보다 약간 긍정적 방향으로 한반도 통일을 평정했으나,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2차년도 조사결과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믿음직하다' 차원과 '나와 밀접하다'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밝다' 차원($F(2, 228)=6.01$, $p<0.01$), '높다' 차원($F(2, 228)=8.53$, $p<0.01$)과 '강하다' 차원($F(2, 228)=6.5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 test)을 한 결과, '밝다', '높다', '강하다', 차원 모두에서, 연변일중과 연변대 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인 집단과 연변일중 그리고 사회인 집단과 연변대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5$ 수준).

4. 연구결과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지역 주민들의 심리상태와 의식의 변화를 5년 간격의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현 시점에서 연변사회 내의 연령집단별(연변일중, 연변대, 사회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에 조사된 1차 연구 자료와 5년이 지난 2000년에 수집된 2차 연구 자료를 비교하여, 연변 지역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연구목표는, 새로운 세기를 맞은 연변 지역 주민들의 현재 의식구조를 연령 집단별로 비교함으로써 세대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심리상태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1) 현재의 직업적 소망은 무엇인지, 2)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3)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 4)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5) 현재 나의 입장에 대해 연상되는 느낌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심리 상태와 의식성향을 살펴보기 하였다. 6) 또한 ‘한반도(조선반도)의 통일’ 등에 대해 연상되는 생각과 느낌을 평정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의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결과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동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차-1995년도 연구)와 후속연구(2차-2000년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5년간의 시간적 차이에 따른 연변 지역 조선족의 의식 변화를 집단간 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연령에 따른 세대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차년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지역 조선족들이 소망하는 직업을 종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1995년에 비해 연변 조선족 주민들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소망하는 경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서는 주로 기업가나 교원, 과학자나 학자와 같은 직종

을 선호한데 비해, 2차년도에서는 '기타' 직종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5년 전 연변 조선족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판단하여 문항 선택지에 포함시킨, 교사, 공무원, 기업가, 군인, 학자 이외의 다양한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변 조선족 연령집단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선족 연령 집단별 비교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기업가'에 대한 선호가 1차년도 2차년도 조사 모두 '연변일중'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기업가에 대한 선호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에 친숙한 정도와 사적 재산에 대한 유인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연변일중' 집단이 연변 사회의 자본주의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연변일중' 집단이 교사나 공무원 같은 비교적 안정 지향적이고 체제 유지적인 보수적 직종을 가장 낮은 순위로 선호했다는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한다.

둘째,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심리적 중요성)에 대한 종단적 비교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능력과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심리적 중요성에 관한 한, 5년간의 차이에 따른 일관된 뚜렷한 변화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은 '중심 가치'는 변화에 가장 뒤늦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능력과 성공'은 5년 전 서울 대학생 집단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는데(이장호·노석련·박태수, 1995), 연변 조선족 사회도 '사회발전'이나 '먹고 입는 것'과 같은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성공과 능력을 중시하는 경쟁사회의 가치에 이미 친숙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변조선족 세대간 횡단적 분석에서도 집단간 일관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연변일중' 집단에서 '보장된 일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비중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5년 전에는 '자존심'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면에 가치를 두었으며 '보장된 일터'와 같은 경제적 필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0년도 조사결과에서는, '보장된 일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소망하는 직업'의 분석과 관련하여,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집단에게 있어서도 경제적인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종단적 비교에서도 1차년도 응답과 2차년도 응답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성공’을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의 1순위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응답률을 분석해 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일관적으로 ‘성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명백히 상승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승 경향은 특히 연변대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성공’이 주관적인 행복감과 관련이 있으며, ‘성공’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사랑’이나 ‘친구이해’와 같은 인간적인 교류에서 느끼는 행복지수 보다 능력의 발휘와 그에 따른 보상이 주는 성취지향적인 만족에서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의 결과와 연관지어 중국 연변 지역 조선족들의 가치의식이 ‘인간 중심적인’ 가치기준에서 좀더 시장경제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행복한 인생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을 행복한 인생의 조건으로 가장 비중있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5년간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경제적 안정’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연변대’ 집단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 경제적 안정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실제 임금총액이 감소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취업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한 의미미분적 (semantic differential) 분석결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연변일중’ 집단과 ‘연변대’ 집단은 1차년도에 비해 2차연도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변일중’ 집단의 경우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차원에서 5년 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변대’ 집단의 경우도 ‘밝다’ ‘높다’ ‘강하다’ 차원에서는 1995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연변대학생들은 ‘믿음직하다’ 차원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일중과 연변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입장에 대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연변대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입장이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안심되거나 보장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종단적인 분석에서 '사회인' 집단의 경우는 '연변일중'이나 '연변대' 집단과는 달리,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자신의 현재 입장을 눈에 띄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입장'에 대한 연변 조선족의 연령별 차이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변일중과 연변대생들은 사회인에 비해 자신의 현재 입장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참고로 연변 조선족이 현재 자신의 입장을 연령별로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1차년도(1995년)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연변일중, 연변대, 연변 사회인 집단간에 현재 자신의 입장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었다(이장호·노석련·박태수, 1995). 이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사회인 집단이 청소년이나 대학생 집단보다 현재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할 때도 이전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 조선족의 기성세대가 자신의 현재 입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는, 연변 조선족 사회의 혼돈과 정체감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청소년 집단과 대학생 집단에 비해, 최근 연변 조선족 사회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기성세대들은 전보다 자신감이 위축되고, 안정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섯째,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의미미분적(semantic differential) 분석결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연변일중' 집단과 '사회인' 집단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의 의미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변대'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밝다' '높다' '강하다' 차원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 차원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5년 전에 비해 연변 조선족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식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에서만 통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되 통일을 신뢰롭고 자신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지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 조선족의 세대간 차이를 횡단적으로 분석해 보면, '밝다' '높다' '강하다' 차원에서 연령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

다'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집단간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 '연변대' 와 '연변일중' 집단은 통일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연변대' 와 '사회인' 집단간에 그리고 '연변일중' 과 '사회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단적·횡단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한가지 주목할만한 결과는 1차년도에서 연령 집단간 차이는 연변일중 > 사회인 > 연변대 순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2차년도에서는 연변대 = 연변일중 > 사회인 순으로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이다. 1차년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평가했던 연변대 집단이 2차년도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평가한 점은, 5년 전에 비해 연변대 집단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연변일중과 사회인 집단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각하다가 부정적인 평가로 크게 바뀌었음(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적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대학생 집단은 상대적으로 구체적 정보나 정치사회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국제정세를 인식하는데 비해, 청소년/사회인 집단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여론에 기초한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통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통일에 대한 청소년/사회인 집단의 부정적 평가 경향은 연변 조선족의 이른바 '반한(反韓)감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대한 일부 부정적 감정이 남북 통일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논의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연변 조선족의 심리상태와 의식구조의 변화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변 조선족들은 점차 자본주의적 유형의 가치의식과 심리적 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변지역의 경제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동북아 거점 지역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두만강 지구 국제협력 개발과 연변의 공업화 추진에 따라 외국과의 합작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자가 도입되어 연변지역 산업 발전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 된 연길지역의 경우, 무역관련 공사가 149개소가 운영 중이며, 22개의 전자 관련의 유한공사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종합회사는 71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1997년 3월 현재). 이러한 공업의 발전 여건은 상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연평균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 음식점, 유통업소가 성업 중이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연변 조선족의 자본주의적 가치의식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선호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에 따라 연변 조선족들의 의식구조와 심리상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본 연구의 경험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95년에 비해 2000년 상반기의 연변 조선족들은 훨씬 다양한 직업적 선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대로 교육을 중시하던 풍토에서 선호되던 직업인 '교사'나 '학자'의 선호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 '기업가'나 개인사업과 같은 경제적 이득이 실현되는 직종을 선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인 행복의 조건과 중요한 가치를 '성공이나 능력'에서 찾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연변 조선족들의 의식구조가 인간 중심적 가치기준에서 성취 지향적인 가치기준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변 조선족의 가치의식의 변화는 연변지역 내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연변대 민족연구소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은) 근검 소박하고 간고분투하는 우수한 민족전통을 망각하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며 "배금주의 '금전만능' 사상이 조장되고" 있다고 가치의식의 변화를 지적하였다(박창욱, 1996). 한편, 연변지역은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 있으나(GDP 4.4% 증가, 1인당 GDP 4.3% 증가; 1998년 통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지표는 상승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 경제는 취약한 상태이며(근로자 임금총액은 5.4% 하락, 종업원 1인당 임금액 3.6% 하락; 1998년 통계), 구조조정과 기업개혁의 확대로 인한 정리해고 인원이 늘고 있다(5만 9천명; 1998년 통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연변 조선족들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전 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여기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성취지향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밖

에 없는 현실은, 본 연구에서 연변 조선족 기성세대가 자신의 현재 입장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커다란 이유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아직 젊고 혈기왕성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다가오는 사회적 변화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연변 조선족의 평가는 다소 이외의 결과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남한 정부의 일관된 '햇볕 정책'으로 남북간 신뢰 기반이 형성되어가리라 예측되었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5년 전에 비해 한반도 통일전망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반응한 경향을 언뜻 이해하기 힘든 결과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 경향은 연변의 기성세대인 사회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에서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남한 체류 중 '불평등 경험'을 겪은 연변 조선족의 '반한(反韓)감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변 지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의 천민 자본주의적 행태, 한국 입국과 취업을 빌미로 한 조선족 사기사건,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행 '처녀유실' 문제, 국내 기업들의 임금체불과 악덕 기업주의 횡포 등, 일부 한국인들과 기업들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는 연변 조선족의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연변 조선족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서운함이 전반적인 '반한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한감정' (또는 양가감정)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의식성향으로 투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과 연변 조선족의 관계를 통해 시사되는 점은, 경제력의 일방적 우위를 바탕으로한 불평등적인 인적·물적 교류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 조선족 촌에나) 모두들 한국만 믿고 빈들빈들 놀면서 빚만 늘어가고 땅은 묶어 자빠지는" 현상(흑룡강신문, 1995. 4. 8)이나, "... (전략) '한국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규를 도외시하는 사람이 무더기로 나타났다. 중약장사, 산업연수, 위장결혼, 밀입국, 불법 취업 ... 조선족 마을에는 총각들이 장가를 가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유통업소에는 조선족 아가씨들이 득실거린다. 술한 가정이 파탄하고 있다. 이혼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도덕과 전통적 미풍양속은 다 거덜났다. 교육에 대한 영향은 심각하다. 교원들은 돈벌이를 위해 교직을 이탈하고 ... 가정 교육에도 구멍이 뚫렸다. 30~50% 정도의 학부모가 아이

들을 내팽개치고 국외로 도시로 나가버렸다. … 전통적 가치 체계는 ‘한국바람’에 여지없이 무너져 (후략)” 버리는 현상(료녕조선문보, 1996. 12. 26)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5년간의 간격을 두고 연변 조선족의 심리상태와 의식구조의 변화를 직접 확인한 종단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 연변 지역은 민족동질성을 지니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자본주의적 유형의 시장경쟁 모형으로 이행해가고 있는 동시에 남북한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고 있는 특수지역이다. 연변 사회의 변화과정은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서 통일 이후 사회 변화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변 조선족의 심리상태와 의식구조를 종단적,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통일에 대비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5년간의 시대적 간격을 둔 2차례에 걸친 제한된 조사연구이므로, 연변 조선족의 심리상태와 의식구조가 어떤 경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한다. 5년의 시간에 걸쳐 연변 조선족이 어떤 변모과정을 거쳤는지를 추적한 연구가 아니라, 두 시점간의 비교를 통해 조선족의 심리상태와 의식변화를 추정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표집대상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자료표집의 오차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한편, 자료수집의 시점이 남북 정상회담 이전이라, 최근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앞으로는 보다 중장기적인 현지 관찰을 통한 정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며, 좀더 세분화된 질문지를 통해 심리상태와 의식구조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민경환(1994),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통일”, 심리과학연구소 편, 〈심리과학〉, 4, 2, 31-46.
- 박창욱(1996), “중국 ‘조선족’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비평》1996년 여름호.
- 이장호(1993),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움보고서》, 125-134.
- 이장호·노석련·박태수(1995), “중국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 심리과학연구소 편, 〈심리과학〉, 4, 2, 31-46.
- (1996),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의 의식구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과정책연구》, 18, 2, 1-20.
- Kohr, H.(1993), “Psychological problems in the German unification”, 이장호·이춘재 공편,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36-58,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sychological Awareness of Yanbian Koreans in China

Chang-Ho Lee* · Piao, Tai Zhu**

This study is a longitudinal research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psychological awareness and mental characteristics in native Yanbian Koreans in China.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survey data(1995) and second survey data(2000) was analyzed.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awareness in Korean generation groups at Yanbian territory, China. The data from native Yanbian Korean groups($n=558$) were accordingly analyzed.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items reflecting the individual subject's view of values and psychological items concerning evaluation of incumbent social issues.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was an increased tendency toward capitalistic values and prefere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Yanbian Koreans. In addition, Yanbian Koreans in the year of 2000 took relatively pessimistic view of the unification of Korea as compared to those in 1995.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research result were discussed.

*Professor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The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unification of Korea. Major Relevant Publication: Explorative Study on the Mental Structure of Yanbian Koreans in China(1995), A Comparative Study on the Psychological State of Native Korean Residents and Chinese in Yanbian Territory(1996). E-mail: chl3631@chollian.net; chl3603@knornet.net.

**Director Professor of Education and Psychology Department, Yanbian University, Research Area: Philosophy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Major Publication: *Series of the History of the Korean-Chinese Culture*, Education Part(Co-author), *Brief Korean Encyclopedia*, Education Part, *Modern Korean Human Social Science*, Psychology part, "On the Development and the Reform of the Korean-Chinese Education", "Reflection on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Culture Sel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inority Nationality". E-mail: jiaoxin@ybu.edu.cn, ydptzh52@china.com.